**하나님의 평화의 집을 함께 만들어가기**

*평화를 만드는 일은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며, 기다림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이를 되새기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십시오: 평화를 만드는 일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며, 기다림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지금은 *평화의 시기로* 우리, 교회들이 함께 평화와 화해의 추구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평화의 집, 모든 이들이 환영받고, 모든 이들이 긍휼, 평화, 정의를 찾을 수 있는 집을 지어갑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당신 몫의 헌금을 통해 후원받는 당신의 교회의 사역을 여기에 기록하세요) 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당신의 '평화 및 지구촌 증인 헌금'에 의해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헌금은 또한 국내외에서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기다리지 않고 행하는 장로교 평화봉사자들과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메릴랜드 주의 볼티모어에서 헌팅 리지 장로교회는 헌금의 일부를 사용해 학교 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의 데이튼의 중앙 장로교회는 그 헌금을 활용해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세계 장로교 평화 펠로우십에 대표를 보내 혁명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나라 곳곳에 평화 협정 진행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퍼시픽 노회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저임금 노동자와 기타 취약 계층을 위한 변화를 가져오려는 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 및 지구촌 증인 헌금'은 다른 헌금들과 함께, 소년병 강제 징집을 종식시키고, 성별에 의한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며, 비핵화를 통한 평화를 촉진하고, 마다가스카르와 르완다와 같은 지역에서 기아를 막고 평화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시기에, 우리는 장로교인들이 함께 카메룬의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지역에서 음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워싱턴 주의 한 교도소에서 새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STD와 HIV/AIDS를 막는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을 통해 우리는 이 모든 노력에 참여합니다. 그들이 바로 여기 (여러분의 도시나 타운)에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았거나 가지 않을 곳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역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원하셨던 자유와 존엄의 필요성입니다. 항상,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합시다.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께 평화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의 집의 건축가들입니다. 다같이. 우리가 *다같이 조금씩 하면, 많은 것으로 모일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평화의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집을 지어갈 때에 화해의 역사에 적극적이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이 선물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이들이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아멘.*